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의 출산 연기 배경, 자녀에 대한 태도, 저출산 정책 요구도*

성미애**·최연실***·이재림****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저출산 정책이 개입할 여지가 큰 자녀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의 관점에서 출산 연기의 배경, 자녀에 대한 태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요구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출산 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무자녀 '남성'의 관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자료는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자녀 갖기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있다고 보고한 만 50세 미만의 무자녀 남성 6명과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주제 분석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출산 연기의 배경'으로는 경제적 문제, 주거 등 안정된 생활 기반 부족,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출산 연기에 대한 배우자의 의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기대, 주변의 무자녀 부부를 통한 불안감의 해소가 주제로 도출되었다. 둘째, '자녀에 대한 태도'의 하위주제로는 당연히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보편적 자녀 출산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모의 조부모됨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자녀, 높은 출산 의향,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도출되었다. 셋째, '정책 요구도' 관련 주제로는 사회 문제로서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원 및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의 필요성,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녀가 출산 결정과 자녀 양육을 공유할 수 있도록

* 본 연구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NRF-2012S1A5A2A03034353), 2015년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성미애(주저자): 성미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가족 관련 가치, 가족 및 친족 개념,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 일-가족 양립, 빈곤여성가장, 은퇴 생활, 다문화가족, 비혼 여성, 무자녀 가족 등이다. E-mail: eliza_s@knou.ac.kr

*** 최연실: 최연실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이며, 가족심리와 임상 작업, 가족관계의 내적 역동 분석, 다문화가족, 한국가족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yschoi@smu.ac.kr

**** 이재림(교신저자): 이재림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이며, 연구주제는 청년과 가족, 세대 간 자원이전(상속, 손자녀 양육지원 등) 등이다. E-mail: jrlee@snu.ac.kr

하는 저출산 정책, 부모됨을 통한 행복 추구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무자녀 남성, 출산 연기, 출산 결정, 부모됨, 자녀에 대한 태도, 저출산 정책

I.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됨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출산 연기의 배경,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정책 요구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출산을 해야 한다는 보편적 출산관에서 벗어나 출산이 ‘선택’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자녀 가족에 대한 연구는 불임 또는 난임 여성 중심의 연구(강희선, 2004; 김주희·신혜숙, 2013; 배경의·박춘화, 2007)에서 나아가 자발적 무자녀의 삶에 대한 연구(김정미·양성은, 2013; 조준영, 2006)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무자녀 기혼자를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녀 기혼자 내에서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자발적 무자녀와 비자발적 무자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연구(공미혜·이수연, 2012; 김정미·양성은, 2013; 성미애 외, 2014; 최연실 외, 2014),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의 출산 연기 맥락을 살펴본 연구(성미애 외, 2015)도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무자녀 기혼자의 삶에서 발견되는 다양성에 주목하여,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의 출산 연기의 배경과 자녀에 대한 태도 등 출산과 관련된 가치나 삶의 맥락을 살펴보고, 아울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 출산 ‘연기형’ 무자녀에 주목한 이유는 저출산 정책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가치 및 삶의 양식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면서 자녀를 영구적으로 갖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발형 무자녀 집단을 지원할 때는 선택에 의한 무자녀로서의 삶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된다. 그러나 다양한 삶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것은 출산 관련 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크다. 즉, 무자녀 기혼자 중에서도 부모됨을 연기하는 집단이 무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상황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는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됨은 성인이 경험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한 형태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지연하는 것이 출산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 정책을 통해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신인철, 2009). 특히 근거중심적 정책,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부모됨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지, 자녀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 요구도는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저출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무자녀 기혼 ‘남성’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출산 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성미애 외, 2015; Buss, 1999; Geary, 1998)가 많다. 출산을 하는 주체가 여성이고 모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부성에 대한 압력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Thomson(1997)은 무자녀로서의 삶과 관련해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현재의 핵가족 구조, 맞벌이 가족 양상에서는 과거와 같이 ‘여성=양육자’라는 관점에서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부모 모두 양육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자녀 출산과 관련된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기혼 남성의 시각에 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됨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남성이 자녀 출산에 대해 어떤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됨을 연기하고 있는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출산 연기의 배경과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정책 요구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어떤 삶의 맥락에서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지를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출산 연기형 기혼 남성의 관점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되돌아보고 부모됨을 연기하는 일이 빈번한 한국사회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양적 연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 즉 기혼 남성이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역동적 맥락을 파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출산 연기형 무자녀 가족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저출산 정책을 마련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한국의 저출산 정책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최근 10년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왔다.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 9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 사회’를 장기적인 비전으로 하는 ‘새로마지플랜’을 계획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실시되었으며,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수립 방향이 발표된 바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11-2020년까지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006-2010년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6).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았으며,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적 대응과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자체 평가를 받았다(대한민국정부, 2011).

이러한 평가에 따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은 2011-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2016-2030년에는 OECD 평균수준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을 추진과제로 제2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과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 표는 제2차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중에서 저출산 분야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의 세 가지 하위 과제인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정리한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15). 이를 보면 일·가정 양립지원, 신혼부부 주택지원, 임신·출산 지원, 자녀양육 지원, 아동·청소년을 위한 환경조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현행 저출산 정책 개요

| 과제 | 시행계획 |
|---------------|--|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사용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산후 회복기간이 더 필요한 쌍둥이 산모의 출산휴가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시간선택제 근무 활성화 단시간 시간제일자리 확산·지원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개발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초과근무 관리강화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체인력뱅크 구축 지원 |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지속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6 가족과 문화 제27집 4호

| 과제 | 시행계획 |
|---------------------------------|--|
| | <p>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강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유치원 평가 내실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실수요계층 입소 우선순위 부여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이웃 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p> |
| <p>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p> | <p>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p> |

| 과제 | 시행계획 |
|----|--|
| | 휴먼네트워크 확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아동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 확충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청소년정책 '15년 시행계획 수립 장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

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대한민국정부, 2015)의 항목을 정리한 것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현행 저출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내리고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선택적 대응을 위하여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여성에게 집중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사회-남성이 분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일 중심에서 일-가족생활 조화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꼽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하지만, 출산을 증가를 위해 투자를 증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반등에는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정부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인 만혼이나 비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육아지원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다양한 수요와 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서는 미흡하고, 미시적 접근으로 사회구조적 원인 등 근본적 해결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제도들 마련에도 과거 문화나 관행의 지속으로 인해 일-가정 균형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관계부처

합동, 2015). 이처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은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맞벌이 가족의 수요나 다양한 가족 수요층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거나, 미시적 접근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의 사회구조적 원인 등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충족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보편적인 지원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대책 역시 여성의 이중역할 모형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부부평등 모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이제상·송유미, 2015, 127)가 높다.

이러한 평가와 비판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16-2020년을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15).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만혼 추세 완화, 맞벌이 출산을 제고, 출생·양육 지원 강화를 추진하여 저출산 추세를 반전함으로써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4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방향을 잡고 있다. 구체적인 핵심 추진방향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 마련(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 지원), 출산이 기쁨이 되는 사회 조성(맞춤형 안심보육 확립, 일-가정 균형 실천력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임신·출산비용 보장성 강화, 한부모 가구 양육기반 조성)를 중점으로 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15).

2. 출산 연기형 무자녀 관련 연구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삶의 방식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면서 무자녀에 대한 연구들(공미혜·이수연, 2012; 권운진, 2004; 김정열, 2002; 김한곤, 1991; 성미애 외, 2014 등)이 발표되고 있다. 기존의 무자녀 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발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유형과 비자발적으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유형으로만 나누고서 살펴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자녀 기혼남녀를 자발형과 비자발형, 그리고 연기형으로 구분해서 심리적 복지와 부부관계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최연실 외, 2014)에 따르면, 출산 연기형 기혼 남녀의 경우 자발형과 비자발형 기혼 남녀에 비해 부부 간 적응을 잘 하고 있었으며, 별거나 이혼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각하는 등 자신의 부부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자발형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출산 연기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자신들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기형은 자발형과 비자발형에

비해 여러 가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출산 연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가족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김민주, 2010; 이삼식 외, 2012)에 따르면, 출산을 저하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만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육아 교육 및 체험 부족, 산후우울증, 자녀양육 비용 부담, 자녀양육 비용과 노후준비 간 갈등이 나타났으며, 가족적 요인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가족지원망 약화, 자녀 질병, 주거 부담,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 열악 등이, 직장 요인으로는 고용불안정, 경력단절, 육아 휴직제도의 불안정성 등이,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산모 및 자녀양육 인프라 미흡, 출산·양육 관련 의료 인프라 미흡, 가부장적 지역사회 문화 등이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하였으나 육아 및 가사 일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무자녀 기혼자 및 미혼 남녀들은 우리나라 여건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권영인, 2014).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연기의 맥락과 정책적 제언을 살펴본 연구(성미애 외, 2015)에 따르면, 출산을 연기하는 주된 사유는 경제적 부담이었으며, 그 외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의 존재로 인한 부부 간 갈등과 결혼 자체의 불안정성 인식, 애완동물의 존재, 무자녀 삶에 대한 익숙함과 편안함 등이 연기 사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 출산 결정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수록 실현하기 어려운 계획이 되며, 결국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녀 출산은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발달과업의 범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숙제가 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주거의 안정성을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첫 자녀 출산 시기가 연기되면서 초조함도 있었지만, 무자녀 삶이 주는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으로 인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이 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성미애 외(2015)의 연구는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의 관점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부부 공동의 사안인 출산과 부모됨에서 남성의 관점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는 출산 결정, 출산 의향, 출산 기피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주희·고선강, 2015; 신인철, 2009; 염지혜, 2013; 우원규 외, 2013)에서도 나타난다. 출산을 하는 주체가 여성이고 자녀의 주양육자가 어머니로 여기지는 현실에서 여성의 관점이나 선호는 출산에 대한 부부의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이므로, 여성 중심의 연구경향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출산 관련 대규모 조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모됨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경험하는 생애사건으로서,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가족생활주기에서 자녀양육기로 접어드는 전이사건이라는 점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부모가 됨으로써 금전, 시간 등 부부 두 사람이 공유하는 가족자원에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므로, 출산은 부부 공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출산을 연기하는 것은 남성에게도 중대한 결정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저출산이나 출산의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기혼 남성의 시각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남성이었다. 구체적인 참여자 선정기준은 (1) 보편적으로 신혼기로 보는 기간을 넘어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2) 현재 자녀(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포함한 생물학적 자녀, 양자녀, 계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모두 포함)가 없고, (3) 자녀 갖기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4) 50세 미만인 남성으로, (5)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되도록 다양한 배경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소개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모집 과정에서는 참여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분간 자녀 갖기를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고 심층면접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남성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연구자들의 대학 연구실에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면접 내용 및 절차, 개인정보의 보호 및 비밀보장, 연구 참여의 자발성 등에 대해서 설명한 후 연구참여동의서에 상호 서명을 하였다. 면접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하

였다. 심층면접에서 가이드 역할을 한 반구조화된 질문에는 자녀의 의미, 무자녀 삶의 의미, 출산을 연기하게 된 배경, 앞으로의 출산 의향 및 시기,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심층면접 중 비교적 유사한 내용의 진술이 반복되는 시점에 면접을 종료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기혼 남성 총 6명의 심층면접 내용이었다. 녹음된 면접 내용은 텍스트의 형태로 세밀하게 전사하였으며, 이상의 자료수집 절차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는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남성 6명이었다. 심층면접 당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연령은 만 33-38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34.83세였다. 연구 참여자의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만 32.17세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첫 자녀 출산 연령인 30.73세(통계청, 2013)보다 약 1.44세 정도 높았다. 결혼지속년수는 3-9년이었으며, 평균 5년이었고, 교육수준은 연구 참여자 모두 대졸이었다. 본인 직업은 사무직이 4명, 영업직 직원이 2명이었고, 배우자는 4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2명은 대학원생이거나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평균 490만원이었다. 심층면접 당시인 2014년 2분기 2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의 평균이 3,040,087원(통계청, 2014)인 것에 비교해 보면, 연구 참여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 소유 형태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2명,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가 2명, 반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가 1명, 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관리비 및 생활비를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가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들이 현 주택 규모는 자녀를 키우기에는 협소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객관적인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자신의 상황이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인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참여자 | 본인 연령 (만) | 배우자 연령 (만) | 결혼 지속 년수 | 교육 수준 | 직업 | 맞벌이 여부 |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 거주지 소유 형태 |
|-----|-----------------|------------------|----------------|----------|-----|-----------|---------------------|-------------------------|
| A | 37 | 41 | 3 | 대졸 | 사무직 | 맞벌이 | 450 | 자가(대출금 많음) |
| B | 34 | 29 | 9 | 대졸 | 사무직 | 외벌이 | 500 | 전세 |
| C | 33 | 28 | 4 | 대졸 | 사무직 | 맞벌이 | 500 | 자가(대출금 많음) |
| D | 33 | 26 | 4 | 대졸 | 영업직 | 외벌이 | 300 | 전세(보험료 많음) |
| E | 38 | 35 | 6 | 대졸 | 사무직 | 맞벌이 | 600 | 부모와 동거 (관리비와 생활비 전담) |
| F | 34 | 34 | 4 | 대졸 | 영업직 | 맞벌이 | 590 | 반전세(월세 부담 많음) |

주. 2014년 면접 당시의 자료임

2. 자료 분석방법

전사된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주제 분석법은 특정한 이론적 틀을 따라가기보다 질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여기서 중요한 주제(themes)란 참여자인 내부자의 에믹(emic)한 관점에서 중요한 동시에 연구자의 에틱(etic)한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주제를 의미한다.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법 6단계에 따라 (1) 반복적으로 전사본을 읽고 자료와 친숙해진 후, (2) 초별 코딩을 하고, (3) 초별 코딩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서 주제를 도출하고, (4) 도출한 주제의 연결고리를 살펴본 후, (5)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6)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중 3단계에서 도출된 주제는 경제적 문제, 안정된 생활 기반 부족,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의사와 기대, 주변 무자녀를 통한 불안감 해소, 보편적 자녀 출산관,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양가 부모의 조부모됨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자녀, 높은 출산 의향, 출산 연기에 대한 아쉬움, 사회 문제로서의 저출산, 경제적 지원 및 맞벌이 지원 정책,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 등으로 다양했다. 이어, 4단계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면서 대주제로 (1) 출산 연기의 배경, (2) 자녀에 대한 태도, (3) 정책 요구도를 도출하였고, 5단계에서는 대주제와 하위주제의 연결고리가 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위주제의 명칭을 다듬었다. 6단계에서 기술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IV. 연구결과

1. 출산 연기의 배경

1) 경제적 문제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인 연구 참여자의 당초 출산 계획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신혼기를 거친 후 약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었다. C씨는 “처음에 좀 천천히 낳자. 구체적으로 언제 낳자는 이야기는 안하고 당장 돈 좀 벌고 급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했고 자녀수는 두 명 정도로 생각했었어요.”라고 하였다. E씨는 “저는 둘 정도. 바로 결혼해서 6개월 정도는 신혼생활을 하고 그 후부터는 출산해서 한 두 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 출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평균 5년 후까지 출산을 연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끈 주된 요인은 경제적 문제였다. 여기서 경제적 문제란 자녀를 낳고 키우기에는 수입이나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 대출금이 많다는 점,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점 등이었다. 다음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라고 한 A씨의 이야기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했으면 낳았겠죠. 바로 뭐, 솔직히 집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와이프도 집에서 쉬고 부모님들도 다 건강하시고 잘 살고 이러면 바로 낳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누군가는 부부생활이 잘 안 돼서 되는 부분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낳는 사람도 있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거거든요. 경제적인 게 가장... 이 딸려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미루게 되고 안 낳게 되고 그러는 거 같아요. (A씨)

참여자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배우자가 경제활동이나 취업준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자녀를 낳을 경우 아내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남편이 단독 부양자가 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출산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었다.

저는 이제 왜냐면 부모님을 조금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중략) 주위 친구들 보면 비슷한 직장 다녀도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경우 많잖아요. 아파트 사거나 매매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여유가 없으시니까 제가 그냥 제 좀 대출 끼워서 그냥 갔죠. (중략)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맞벌이가 낫잖아요. 외벌이 보다. 그런 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편이에요. (C씨)

한편,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인 상황에만 국한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부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현실적으로 자녀 출산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내와) 사이도 많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았으면 이렇게 피임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생각을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렇죠. 남자가 뭐 하겠다고 큰소리 뽕뽕 쳐 놓고 나가가지고 돈도 별로 없으면서 다 까먹고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직장도 때려 친 상태고 뭐 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걸 매일 매일 이야기하니 그렇게 하면 또 언성 높아지고 싸우고 또 싸우게 되면 부부생활이 안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그 때는 피임도 안 하고 부부생활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토라져서 살고 방이 두 개니까 각방 쓰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A씨)

2) 안정된 생활 기반 부족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연기하고 있었다. 특히, 안정된 생활 기반의 전제 조건이 되는 적절한 수준의 주거 확보가 자녀 출산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이후 두 번 이사를 해야 했던 F씨는 이렇게 이사를 자주하는 환경에서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고 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 비추어서 적어도 자녀가 학창시절까지는 한 동네에서 자라면서 안정된 학창시절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서울 시내에서 월세가 포함되지 않은 전셋집을 마련하거나 서울 근교에서 자가로 소유하면서 살 정도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자녀를

출산하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최소 반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전세 정도로 서울에서 살던지 아니면 (서울) 근교에 집을 사는 정도까지는 돼야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중략)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요. 지금 결혼하고 나서 두 번 옮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 한 번 옮기고 또 옮겼는데, 이게 아이를 만약에 낳으면, 제가 전학을 조금 다녔거든요. 이게 집이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 전세 집이 있으면 더 좋고 아이가 초등학교 때 최소한 학창시절까지는 이동 없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최소한 집은 있어야지 보장이 되잖아요. 최소한 아이를 위해서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동네 친구들이랑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아이도 좀 불행할 것 같고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좀 약간 안정적인 기반이 갖춰진 다음에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와이프도 동의하는 문제이구요. (F씨)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안정된 삶의 기반에 대한 표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에 머무르면서 계속 출산을 연기하고 있었다.

낳기 전에 어느 정도 안정 기반을 좀 갖춰놔야지 생각을... 그러니까 5년 전에 생각했던 기반을 지금 이뤘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사람의 이상이 높아지잖아요. 이 정도는 되고 낳아야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아 내년엔 꼭 낳아야지, 낳아야지.” 계속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중략) 옛날에는 뭐 사귄 때만 해도 월세방, 단칸방이라도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자 그렇게 애기를 했죠. 근데 막상 또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집 뭐 이런 게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계속 연기... (중략) (아내와) 충돌은 없어요. 충돌은 없는데 항상 얘기를 하다보면 낳는 시기가 뒤로 점점 늦춰지는 거죠. 이미 처음에 결혼할 때 계획은 이미 애가 커가고 있어야 하는데. (F씨)

3)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한국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높은 책임감 수준을 반영하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해줄 건 다 해 줘야” 하고,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D씨는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거죠. 책임감? 제가 책임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흐름을 봐서는 좀 잘 키워야 될 것 같죠.”라고 하였고, C씨 역시 유사한 의견이었다.

(자녀가 있으면) 책임감이 막 들겠죠. 책임감. 해줄 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을 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한 스무 살 전까지는 뭐 다 해줄 건 해줘야죠. (C씨)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남성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모,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은 역설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부담은 곧 자녀를 쉽게 출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었다.

4)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의사와 기대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자녀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의사나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기대가 출산을 연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출산은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사건이지만, 남성 부양자 역할 모델이 여전히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실제 출산으로 큰 변화를 겪는 사람은 여성이기 때문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배우자는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대학원, 시험준비 등을 통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여성이 직업생활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존재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아내의 의사가 부모됨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와이프 생각을 다 무시하고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둘 다 직장생활 하나. (중략) 저희가 크게 돈이 많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신혼살림하면서 전세 구했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야기 한 거는 일단 1년 정도는 (아이 없이) 생활을 하자고 했어요. (중략) 어느 날 갑자기 1년 됐다고 피임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하다가 한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와이프도 이제 어느 정도는 동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와이프가 계획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앞

으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했을 때 한 일 년 정도 좀 보고서 계획을 잡고서 계획에 맞춰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제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A씨)

더욱이 연구 참여자의 아내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태어난 자녀에게 ‘제대로’ 해줘야 하며, 자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 규모부터 시작해서 자녀양육을 위한 현실적인 생활 계획에 매몰되어 있었다. 출산 이전에 갖추기를 희망하는 이러한 전제조건과 현실과의 괴리는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데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제 남자들은 애기를 만약에 키우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애기를 낳았으면 내 애기를 위해서 뭔가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지금 저희가 17평짜리이거든요. 빌라에서 애기 낳으려면. 남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17평인데 뭐 거기서 셋이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와이프는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20평대로 가야 된다고. 그거를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피임하게 되고 계속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중략) 와이프는 직장을 그만두던 아님 육아휴직이 되면 자기가 (애 키우는 것을) 다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키우려면 집이 조금 넓어야 된다고. 그건 결혼 전부터도 했던 얘기고. (A씨)

5) 주변 무자녀를 통한 불안감 해소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에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자녀가 없는 부부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되면서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안하게 인식하지 않는 경향도 보였다. 즉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에서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기도 하였다.

친구들도 보면 주변 친구들도 첫째를 20대 때 일찍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은 둘째, 셋째도 잘 갖더라고요. 근데 30대 때 결혼한 애들이나 보면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와이프가 뭐 연상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동기들도 형 나이지만 뭐 동기니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 늦게 결혼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저는 늦게 결혼하면 바로 애를 낳겠지 생각을 바로 했

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오히려 아이를 요새는 더 안 낳는 거 같더라고요. 제 주변은 그래요. 근데 저도 만약에 주변사람들이 아이를 1명씩 다 데리고 나오고 그러면 불안해서라도 빨리 낳자 이럴 텐데 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임에 아이들 있는 애들 별로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F씨)

2. 자녀에 대한 태도

1) 보편적 자녀 출산관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한 지 약 3-9년이 지난 후에도 부모됨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출산해야 하며, 자녀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보는 보편적 자녀 출산관을 갖고 있었다.

저는 가정이 와이프랑 저랑 살아감에 있어서 둘이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단계별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 행복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게 또 사람의 필수요소가 아닌가. (중략) 어쨌든 (자녀는) 꼭 필요한 존재인거 같아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 (B씨)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정상적인 삶, 올바른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로서의 삶을 ‘빋겨 나간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D씨는 “지금까지 계속 당연히 되어왔던 관습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뭔가 좀 정상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외에 다른 참여자들도 가족에는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다.

만약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거나 요즘 이제 독신들 많지만, 그게 죽을 때까지 혼자 살거나 아니면 애를 안 낳고 살거나 이거는 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당연히 자기인생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들이 또 우리 부모님도 할머니 세대부터 그렇게 해서 그래왔던 거고 선조들도 그래왔던 거고. 그래서 당연히 어른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한번 왔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만들어놓고 가야지 (웃음) 이런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던 것들이 삶에 있어서 꼭 정답이라고 말은 안 해 주지만 그걸 듣고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이구나’라고 느낀 거죠. (중략) 대부분 살아가는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구간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식으로 웬지 거기서 뭔가 빗겨나가면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는 데도 또 빗겨 나갔을 때 뭔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있는 거 같아요. “왜 재들하고 나하고 틀리게 되었지?” 이런 생각들. (A씨)

2)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연구 참여자들은 보편적인 자녀 출산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자신의 확장으로 여기면서 부모됨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특히 “자신의 또 다른 자아”(A씨), “나의 연장선”(A씨), “나를 닮은 애”(C씨), “또 하나의 나”(E씨) 등 자신의 확장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가 부부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자녀는 신혼기를 지나면서 정제되어 있는 부부 사이나 가족발달주기 상 가족형성기에 머물러 있는 부부에게 ‘전환점’이 되면서 삶의 ‘활력’이 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다.

(결혼) 3년차 시점에서 죽고 못 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연애 했을 때나 갓 결혼했을 때나 그렇지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애기가 있으면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 드려야하나. 터닝 포인트,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간에 더 애정이 쌓일 수도 있는 거고. 애기로 인해서.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맨날 똑같잖아요. 일하고 들어오면. 크게 싸우고 그런 건 없어요.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애기가 있을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애기가 있을 경우가 낫죠. 제가 봤을 때. (중략) 자녀는 나의 또 다른 인생 뭐 나의 또 다른 자아. (중략) 그렇죠. 나의 연장선. (A씨)

3) 부모의 조부모됨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자녀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출산을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됨뿐만 아니라 부모의 조부모됨과 연결해서 생각하였다. 즉, 출산을 부부만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부모가 조부모가 되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사회는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이런 거를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외국, 특히 서양권 같은 거는 다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안 낳고 싶으면 안 낳는 거고. 다 자기인생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사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모임 가면 이제 다들 결혼하고 애 낳고 손주 얘기하고 손녀 얘기하고 사진 보여주고 이려고 논대요. 몇 년 전에는 서로 자기 자식들 결혼한 이야기하고 놀았는데 이제는 손주 손녀 이야기하고 논데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런 것도 되게 섭섭해 하시고 “그런 재미로 내가 사는 건데” 하시죠. (A씨)

자녀 출산을 부모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상황을 너무 자신들만 생각한 의사결정으로 보았다. 이런 배경에서 부모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움”, “불효”, “미안함”, “후회” 등의 정서를 보이고 있었다.

일단 부모님들은 자꾸 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꾸 물어보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면 결혼했는데 손자가 생길 법한데 안 생기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기도 어려우실 거고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 드린 부분, 손자를 안겨드려서 즐거움을 못 드린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이 죄송스럽죠. 불효 같아요. 불효라고 생각해요. 불효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불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E씨)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죄송스럽죠. 아버님한테 아무래도 어쨌든 하나라도 만들어가지고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불효를 한 것 같고 너무 와이프랑 제 생각만 한 거 아닌가. 아니 뭐 얘기 낳았다고 부모님들이 그거 보고 돈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더 귀찮아 질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살아계신 동안은 그래도 손주 보는 재미고 손녀 보는 재미인데 그걸 못 보여드리고 가신게 저는 좀 후회하는 스타일이예요. (A씨)

4) 높은 출산 의향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로서의 삶을 ‘정상’ 또는 ‘올바름’으로 여기는 보편적 자녀 출산관을 형성하고 있었고 자녀에 대해 매우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다. “100% 아이는 원해요”라는 F씨의 진술과 “낳을

건데 시기가 문제인 거지”라고 언급한 C씨의 진술처럼, 현재 부모됨을 연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발적 무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할 의향은 없었다.

100% 아이는 원해요. 근데 그 시기가 좀 제 현실이 되는 때... 올해는, 내년이면, 이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정도가 이제 100이라고 치면 한 80%를 이뤘어도, 다시 그 기준에서는 (표준이) 거의 뭐 200-300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낳아야지, 낳아야지 계속 생각은 해도 이게 현실은 안 되고. (F씨)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가 조부모가 되는 것 역시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도 출산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아들인 자신이 무자녀로서 ‘빚겨간’ 삶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부모가 손주 보는 ‘재미’를 누릴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향후 출산 의향으로 이어졌다.

당연히 저희들의 인생인데 뭐 꼭 부모님을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는 100%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무시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런 재미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A씨)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자녀 출산에 맞지 않는 데다가, 출산을 위한 여건에 대한 표준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기약 없이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었다.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40세를 자녀 출산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마 40살까지는 애를 안 낳진 않겠지’라는 생각은 무조건 갖고 있거든요. 글썄요. 40이 딱 한계점인거 같아요. 뭐를 하든지 어떤 시도를 하든지 39까지 뭐든 안 되면. (40대는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고) 둘이 살든지, 입양을 하든지 그렇지 않을까. (F씨)

5) 출산 연기에 대한 아쉬움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은 만큼 지금까지 출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때로는 출산을 장기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되돌아보면

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출산관을 갖고 있고, 출산을 본인 부부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모가 조부모가 되는 생활사건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보편적인 삶의 양식에서 빗겨나간 삶, 정체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써도 부족한 이 나이에 애 때문에, 애 키우느라 저렇게 아등바등 사나. 자기 시간도 없이 여유도 없고. (친구들이) 안됐었죠. 솔직히. 어차피 요새는 다 나이 들어서 낳는데 부부가 시간을 좀 보내다 30대 되면 낳지 뭐 하러 벌써 저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런 애들이 부러운 거죠. (중략) 연기한 것에 대해 후회, 뭣 모를 때 애 낳았다면 다 키워 놓았을 텐데. 그 후회는 되게 많이 해요. (F씨)

내 주변이나 저희 가족 중에도 누나 조카들도 있는데 그 조카가 계속 커가잖아요. 되게 어렸는데 어느 순간 유치원 입학하고... 친구들도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나이가 그만큼 먹었는데 저는 계속 옛날만 생각했었던 거 같아요. 저도 나이가 먹고 계속 변화가 있었는데 '나만 계속 머물러있던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나이는 들었고 계속 처음과 같이 똑같이 그 자리에 서있구나. 그 정체된 느낌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떨어진 거죠. 밝은 쪽보다는 우울한 쪽으로. (E씨)

3. 정책 요구도

1) 사회 문제로서의 저출산

연구 참여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같은 맥락에서 보면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저출산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사회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령화에 관한, 그래서 안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저출산에)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출산은 안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계속 노령화 되니까. 나중에 부양을 하려면 자꾸 이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꾸 노인층만 생각하고 일할 사람 없어지고 하는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일조를 하지만. (E씨)

연구 참여자들은 저출산을 사회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지속시킬 충분한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기조는 출산장려정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자발적 무자녀 부부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유자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자발적 무자녀 가족도) 존중은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무자녀 가족들한테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일단 국가에서 보면 인구가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C씨)

2) 경제적 지원 및 맞벌이 지원 정책

연구 참여자에게 경제적 문제는 출산 연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역시 경제적 지원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교육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점에서 출산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출산을 해도 한 자녀만 갖게 되므로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저출산이 문제인데 왜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것도 많은 거 같아요. 애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한명 낳냐 물어보면 양육비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C씨)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맞벌이가 필수적이고,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희망하였다.

둘 이상을 낳으려면 외벌이로서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누가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친족에서는 보기가 어려우니까 육아 시설이 더 확충이 되고 지원이 더 많이 되면 그게 더 출산 장려가 되지 않을까요? 금전적인 부분보다 육아, 키우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E씨)

흥미로운 점은,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취업모

를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참여자가 어린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주장한 반면, 남성의 육아 및 자녀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역시 자녀 양육과 교육은 여성이 담당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믿고 맡길만한 그런 것도 그렇고 여자들 좀 육아휴직이 모든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눈치도 많이 봐야하고. 참 애 낳기 힘든 사회적 환경이 되어가는 거 같아요. (B씨)

3)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이들은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표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정책으로 든 것이 교육비 지원 등이 셋째 자녀 출산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나 보금자리 주택의 혜택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 등이었다. 이들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나 출산관의 변화로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 때문에 첫 자녀의 출산부터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은 첫 자녀 출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녀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택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까다로움과 불편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정책 지원에 있어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기 보다는 결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제가 알기로는 첫 1명 낳아서 크게 지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째를 낳아도. 예를 들어 국가에서 돈이 좀 나온다던지 출산장려금을. 그거 왜 세 명(부터 주는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중략) (보금자리 주택 신청) 그게 보니까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소득도 보고 부부 소득. 그리고 3년 이내에 애기 몇 명이상 있어야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거 알아보다 너무 짜증나서.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그 조건을 맞춰서 이번에 들어가요. 근데 그 친구도 외벌이인데 소득도 맞춰지고 애도 지금 뱃속에 하나 있고. 하나 낳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해서 들어간 거 봤는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있나. 그거 누굴 위한 제도지 막 그렇게 생각

이 돼요. (중략) 일단 결혼을 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 같아요. (C씨)

4)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갈수록 시대 환경이 꼭 필요한 (자녀의) 존재를 갈수록 옵션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라는 B씨의 진술처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및 교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F씨도 유사한 생각이었다.

그냥 아이를 낳아도 그냥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냥 누구나 많이 낳을 거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힘들다 그러고 맨날 얘기를 하면 힘들다 하는데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아이를 낳을 생각 자체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F씨)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시장 논리나 경쟁 구조가 저출산의 궁극적 원인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회구조가 경쟁이나 경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경제적으로 성취한 사람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나 사회 구조가 너무 경제의 성장을.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박정희 때부터 고도의 성장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나 경쟁원리 경쟁 뭐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높은 어떤 경쟁을 통해서 뭔가 좀 일단은 성취를 하신 분들도 또 애를 안 낳고. 그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이게 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을 보고 뭐가 또 생각이 바뀌어도 그게 잘 안 될 거 같아요. (D씨)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남들 사는 만큼만 살면서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자녀를 잘 키우면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으며, 이렇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야 우리 사회의 주변도 돌아볼 여유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편적 자녀 출산관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 자녀 출산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 차원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문제임이 드러났다.

‘남들처럼’이라는 게 중상층 개념이겠죠. 그냥 그 정도 살고 그냥 어디다 얘기를 해도 풀리지 않을 정도만 되는 정도의 삶을 살면서. 그냥 남들 살듯이 아이 낳고, 와이프랑 행복하고, 이혼 안하고 죽을 때 까지 같이 살고. 뭐 이정도 인거죠. 아이들이 잘되면 그게 행복이겠죠. (F씨)

저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죠. 스스로 안에서부터 행복해야 저희 주변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남들도 더 돌볼 수 있을 거 같고, 돌아볼 수 있을 거 같고. (B씨)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출산 연기의 배경,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정책 요구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 출산을 결혼 후 3년 이상 연기하고 있는 기혼 남성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주제 분석법을 이용하여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출산 연기의 배경으로는 (1) 경제적 문제, (2) 안정된 생활 기반 부족, (3)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 (4)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의사와 기대, (5) 주변 무자녀를 통한 불안감 해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자녀에 대한 태도의 주제로는 (1) 보편적 자녀 출산관, (2)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3) 부모의 조부모됨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자녀, (4) 높은 출산 의향, (5) 출산 연기에 대한 아쉬움이 도출되었다. 셋째, 정책 요구도 관련 주제로는 (1) 사회 문제로서의 저출산, (2) 경제적 지원 및 맞춤형 정책 지원 정책, (3)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4)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연기형 기혼 남성의 경우 현재는 부모됨을 연기하고 있지만, 당초 출산 계획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신혼기를 거치면서 2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 출산 계획은 경제적 문제와 안정된 생활 기반 부족으로 연기되고 있으며, 안정된 삶에 대한 표준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높아지거나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는 부부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출산을 장기적으로 연기하게 된다. 특히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기혼

남성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 부모의 책임을 높게 인식하며, 이러한 높은 책임 의식은 역설적으로 자녀 출산을 부담으로 인식하게 작용한다. 또한 맞벌이 상황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는 있으나 실제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녀를 키워야 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연기한다. 그리고 주위에서 보이는 무자녀 가족들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기혼 남성의 자녀 출산 연기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처럼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기혼 남성의 경우 자신들의 생활계획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부분이나 주거 환경에서 출산을 위한 안정된 생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면서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상황에 한정되어 영향을 미치기보다 부부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산을 할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배우자가 직업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지나친 부모로서의 책임감 또한 자녀를 출산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맞벌이 부부의 가족지원망 약화, 경력 단절 및 육아휴직제도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민주, 2010; 성미애 외, 2015; 이삼식 외, 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 출산을 경제적 부담과 동일시하며,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출산 연기형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성미애 외, 2015)와 일치하였다.

둘째, 출산 연기형 기혼 남성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보편적 자녀 출산관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즉 이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사는 삶을 '정상적 삶', '올바른 삶'으로 인식하며, 무자녀의 삶을 정상적인 삶이나 올바른 삶의 길을 '빚겨간 삶'으로 인식한다. 또한 출산은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됨뿐만 아니라 부모의 조부모됨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여기며, 자신의 출산 연기를 부모에 대한 '죄송스러움', '불효', '미안함' 등으로 인식한다. 이상과 같이 출산 연기형 기혼 남성은 부모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하다. 또한,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는 출산 연기형 기혼 여성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자녀 출산을 미루고 있는 기혼 여성의 출산 연기 맥락을 살펴본 연구(성미애 외, 2015)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기혼 여성들에게 무자녀로서의 삶은 시간적 자유로움과 경제적

여유를 주는 삶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 출산은 부담이고 속제 같은 일로 인식되며, 결국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녀 출산은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기혼 남성과 여성이 무자녀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출산에 대한 부부간 입장 차이는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상황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부부가 결국에는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해준다.

셋째, 출산 연기형 기혼 남성은 자발적 무자녀 가족에 대해서도 존중은 해야 하지만, 국가 정책의 기초는 출산장려정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등 저출산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 중심의 정책, 맞벌이 모형에 맞는 일-가족 양립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들은 다자녀 가정 우선 지원 등 현실적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구조 전반이 경쟁 원리나 경제 원리에서 벗어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교육하는 데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출산 연기형 기혼 남성의 출산 연기는 부모됨에 대한 가치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자녀가 없는 무자녀의 삶을 올바르지 않는 삶, 보편적이지 않는 삶으로 보는 등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1-2년 사이에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았다. 즉 이들에게 출산은 당연한 생활사건으로, 시기의 문제라고 여겨졌다.

출산 연기형 기혼 남성은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였으며, 자녀 출산과 양육이 배우자의 취업 지속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여성의 육아휴직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에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 지원 정책은 기혼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안정된 생활 기반과 자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가족친화적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맞벌이 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내가 퇴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가계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아내의 경력 단절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출산을 하더라도 여성의 일-가족 균형을 깨지 않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출산 연기형 기혼 남성은 단편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자녀 출산에 친화적이며, 경쟁적이지 않는 사회 구조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기혼 남성의 목소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배우자, 즉 아내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맡게 되는 한국 부부의 성역할 분담 체계에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일차적인 타격을 받는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취업모로서 일과 가족 사이에서 고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산 연기형 무자녀 부부가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남편이 일인 부양자로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아내의 목소리는 중대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의 상당수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해 높은 표준을 갖고 있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성 이데올로기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에 대한 우려와 결합되어 출산 결정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 역시 신전통주의 성역할분업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녀를 낳게 되면 높은 책임감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책임은 가장으로서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여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이 선호하는 저출산 정책은 맞벌이 부부 지원 정책 중에서도 기혼 여성이 출산과 관계없이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자녀를 낳을 경우 양육은 배우자가 주로 맡을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인지, 맞벌이 아버지의 돌봄 참여나 일-가족 양립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상과 같이 출산 연기형 무자녀 부부의 출산 관련 결정을 아내가 주도하는 상황, 그러나 아내의 주도권이 돌봄의 역할분담에서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 성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상황은 출산과 자녀양육에서 여성 주도의 패러독스를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젠더 패러독스가 존재하는 이상 자녀 출산을 지연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과 자녀양육이 여성의 영역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공유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이를 토대로 출산에 대한 결정의 주도권도 남성과 여성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부부의 문제는 경제적 기반 부족 등 '상황'에 의한 문제이며, 부모됨을 통한 행복 추구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출산 연기형 무자녀 부부에 대한 정책은 출산을 통해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혼자의 행복추구권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시일 내에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급한 미시 차원의 지원책 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 전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저출산 정책이 계획되어야 함을 드러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은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에 비해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부부에게 체감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정책으로 보인다. 향후 저출산 정책은 제3차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계획 실현 여부에 대한 명확한 평가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의 내부자 시각에서 출산 연기의 배경, 자녀에 대한 태도, 정책 요구도를 파악하고,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심층적 탐색을 목적으로 질적 접근을 취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아서 연기형 무자녀 남성 집단 내의 다양성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연기형 무자녀 남성 중에서도 출산에 대해 배우자와의 관점 차이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결혼 지속연수나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무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의 집단 내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다양화한 질적 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는 참여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무자녀 기혼 남성의 출산 연기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생활 기반의 부족을 출산 연기의 주된 사유로 꼽은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은 출산 연기형 무자녀 부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출산 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기혼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 출산 연기의 맥락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맞춤형, 근거중심적 저출산 정책을 개발, 실시, 평가하는 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실시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출산 연기라는 현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희선. 2004. “여성의 불임 경험 -체외수정 실패 경험자를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2): 119-127.
- 공미혜·이수연. 2012. “무자녀 부부의 결혼생활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23-44.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16848
- 권영인. 2014. “미혼 및 기혼 무자녀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사 고찰과 미래 예상 출산 자녀수 관련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51-268.
- 권윤진. 2004. “삶의 기획과정으로서의 ‘아이없음(childlessness)’에 관한 연구: 아이없는 기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경열. 2002. “불임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민주. 2010.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9(2): 105-129.
- 김정미·양성은. 2013.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79-95.
- 김주희·고선강. 2015. “신혼기 기혼여성과 부모 간의 자원이전과 출산의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27-49.
- 김주희·신혜숙. 2013. “불임 여성의 삶의 질 모형 구축.” 『대한간호학회지』 43(3): 312-320.
- 김한곤. 1991. “기혼여성의 무자녀지향과 그 결정인자에 관한 연구: 1966-1985.” 『영남대세마을지역개발연구』 11: 219-233.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24226&page=1
- 배경의·박춘화. 2007. “불임여성의 인공수정 경험.” 『질적연구』 8(2): 23-35.
- 신인철. 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

59-85.

- 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4.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2: 자발형과 비자발형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예측 요인 탐색.” 『가족과 문화』 26(1): 72-101.
- 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5. “출산 연기형 기혼 여성의 관점에서 본 출산 연기의 맥락과 정책적 제언.” 『가족과 문화』 27(1): 271-303.
- 염지혜. 2013.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75: 43-63.
- 우원규·유승현·조영태. 2013. “기혼여성이 자녀출산시기결정시 고려하는 연령.” 『한국인구학』 36(4): 25-49.
- 이삼식·윤여원·이지혜. 201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보건복지부.
- 이제상·송유미. 2015. 『가족의 실패』. 형설출판사.
- 조준영. 2006. “자발적 무자녀 여성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최연실·성미애·이재림. 2014.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1: 무자녀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및 자녀에 대한 태도.” 『가족과 문화』 26(1): 40-71.
- 통계청. 2013.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14. 가계동향조사.
- Braun, V. and V. Clarke.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uss, D. M. 1999.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Boston: Allyn & Bacon.
- Geary, D. C. 1998. *Male, Female: The Evolution of Human Sex Differenc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son, E. 1997. “Couple Childbearing Desire, Intentions, and Birth.” *Demography* 34: 343-354.

(2015. 10. 18. 접수. 2015. 10. 31. 심사. 2015. 11. 23. 채택)

Abstract

Childless Married Men Who Delay Parenthood: Background of Postponed Parenthood, Attitudes toward Children, and Perspectives on Fertility Policies

Sung, Miai,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Choi, Younshil, Sangmyung University

Lee, Jaer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f childless married men who have delayed having a child. Specifically, we explored the background of postponing parenthood, attitudes toward having a child, and opinions on fertility policies. Delayed parenthood in Korea is an important topic in the context of the extremely low birth rate. Listening to childless men's voices is meaningful because they have been excluded in the literature on decisions about childbirth. Our data were collected from six in-depth interviews with childless Korean men who had been married for three years or more, who had delayed parenthood but hoped to have a child in the future, and who were younger than the age of 50.

The themes around the background of men choosing to postpone parenthood were (a) economic problems, (b) unmet living standards including insecure housing, (c) burden of parental responsibilities, (d) the wife's opinion about childbirth and expectations for childrearing, and (e) relieving pressure of having a child due to other childless couples. As for the childless men's attitudes toward having a child, the emerged themes were (a) parenthood as a normative and taken-for-granted life event, (b) positive attitudes toward having a child, (c) the importance of their parents' becoming grandparents, (d) aspirations for having a child, and (e) regret about having delayed parenthood. The themes related to fertility policies were (a) the low fertility rate as a social problem, (b) the need for economic support and support for dual earning couples, (c) request for meeting real-life needs, and (d) the need for ultimate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We suggest that public policies should better support gender equality in caring for children and value citizens' right to pursue happiness by having a child.

Key Words: childless men, delayed parenthood, decisions about childbirth, fertility policies